

지역 채소류 출하 늘어 가격 안정세

2주전비 시금치·미나리 23.3%·12.3% 하락

aT 광주전남본부 발표...나물 수요 분산 영향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대비 여전히 높지만, 따뜻한 봄 날씨로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은 안정되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정보지 2405호'에 따르면 전남 기준으로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오이(취정·10개)·애호박(1개) 가격은 1만3천원·2천500원으로 2주전 대비 각각 13.3%·18.0%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금치(100g·560원) 23.3%, 미나리(100g·710원) 12.3%, 대파(1kg·2천980원) 26.8% 값이 하락하는 등 대부분 채소류 값이 2주 전보다 싸졌다.

시금치, 미나리 등의 값이 내려간 것은 제철을 맞은 봄나물류가 나오면서

나물에 대한 수요가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년 전과 견졌을 때는 오이(취정·10개)·애호박(1개)은 각각 24%·51% 상승했고, 대파(1kg)는 11.4%, 시금치(100g)는 무려 39%나 비쌌다.

미나리(100g)는 유일하게 지난해(760원)와 대비해 값이 6.6% 하락했다.

이는 미나리의 현재 공급량이 많고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저장물량 감소로 배추(1포기)는 지난해(4천230원) 대비 41.8% 오른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양배추(1포기)는 잦은 비와 산지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지난해(4천원)보다 33.3% 오른 5천300원으로 나타났다.

과일·과채류의 경우 2주전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주전(3만5천원)에 비해 6.9%하락해 3만2천6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과(후지·10개)를 제외하고 참외(10개)·딸기(100g)·배(10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각각 21%·11%·0.7%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고물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지 않은 점이 가격 유지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과(후지·10개)·참외(10개)·딸기(100g)·배(10개) 가격이 모두 두자릿수 급등하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배(10개) 64.8%, 딸기(100g) 40.0%, 사과(후지·10개) 26.8%, 참외(10개) 10.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입과일인 오렌지(10개)·바나나(100g)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7%·6.7% 올랐다.

이 밖에도 김(10장)은 전년(800원)

대비 38.8% 상승해 2주전과 같은 1천11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요 농산물 납품단 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천500억원 규모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오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 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는 "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T/F'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합심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호남지방통계청은 9일 광주연구원과 통계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책연구 활성화·특화통계 개발 '맞손'

호남통계청·광주연구원, 통계데이터 활용 협력

호남지방통계청은 9일 "광주연구원과 광주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성화와 특화통계 개발을 위해 통계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통계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연구 활성화 ▲광주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특화통계 개발·개선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특화통계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활용한 지역 특성화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광주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민

을 위한 다양한 민생통계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계청이 보유한 데이터와 광주연구원의 각종 연구 자료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지기자

"성장기반 조성"...전남건설협회, 올해 회계연도 운영위 개최

일정 결정 건 등 4개 의안 의결 지역건설 내실화 등 목표 설정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9일 광주 동구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2024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66회 정기총회 일정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의결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의 건, 2024회계연도 장학금 지원대상자 결정의 건 등 총 4개 의안을 의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올해 사업계획 목표를 '지역건설업계 내실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정하고 ▲지역건설산업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시장 창출 ▲공사비 정상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건설시장 개편 대응 및 건설관련 규제 개선 ▲회원교육 서비스 강화 및 열린 협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한다.

또한 매년 도내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회계연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9일 광주 동구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2024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제66회 정기총회 일정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의결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의 건, 2024회계연도 장학금 지원대상자 결정의 건 등 총 4개 의안을 의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우수대학생장학금 지원 대상자 13명을 선정했다.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SOC 예산확대,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등을 통한 건

설 물량 창출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사 경영으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꿀잼도시' 스토리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GICON, 광주 고유 이야기·역사 창작물 발굴 작가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9일 "광주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OTT플랫폼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인 '스토리집' 작가를 전국에서 모집했다"고 밝혔다.

모집 결과 138건이 접수됐으며 125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75편, 영화 58편, 애니메이션 3편 등이다. GICON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 이후 최종 11팀을 선발해 오는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스토리집'은 스토리 창작지원금과 함께 2시간 자유롭게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전일빌딩 2456층)을

제공하며 교육·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은 9일 "광주의 고유한 이야기와 역사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OTT플랫폼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인 '스토리집' 작가를 전국에서 모집했다"고 밝혔다.

GICON은 스토리집을 통해 현재까지 총 27명의 작가를 육성하고 누적 34편의 작품을 발굴했다.

또 스토리집 출신 작가의 작품이 카카오페이지 등 각종 플랫폼에 연재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작가들이 광주형 스토리에 호응했다"며 "스토리집을 통해 다양한 원천 스토리를 발굴하고 꿀잼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에어컨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불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선풍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교동시장

◎ 장이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05시 ~ 14시
- 휴무일 : 둘째, 넷째 일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문의 : 062)650-2099